주일예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8월 6일 (제1213호)

주일예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 우 컬 럼

하나님께 맡기자

서울성전 이전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사정에 따라서는 인천교회를 처분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성전이 서울과 인천 중간쯤이 된다면 굳이 성전을 따로 둘 이유가 없고, 또 그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천 교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보다. 어느 성도가 "인천교회를 그대로 둬주세요."라고 내게 간청한 것을 보면. 사실 인천교회는 나에게도 남다르다. 인천교회가 예수중심교회의 모태(母胎)이기에 그렇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8월 20일까지 작정기도 할 뿐이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그분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문제를 맡길 때 내가 꼭 하는 말이 있다.

"100% 넘겨라."

하나님도 그러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100%)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벧전 5:7)고 말했고, 잠언 기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잠16:3)고 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자. 하나님께 이 대업을 다 맡기자! 그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청년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성공법칙

7월 27일부터 2박 3일에 걸쳐 제25회 전국 대학청년 연합수련회가 개최되었다.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국, 해외의 예수중심교단 젊은이들이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으로 모여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개회예배부터 폐회예배까지 모든 순간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셨다.

첫날 저녁 집회,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게 태어난 '레나 마리아'가 수영도, 운전도 잘하는 영상을 보여주시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막9:23)는 말씀을 토대로 메시지를 전하셨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레나 마리아는 우리보다 부족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 4관왕의 영광을 얻었고, 해외를 다니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녀도 이렇게 성공하는데 두 팔, 두 다리를 가진 여러분들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사과 속의 씨앗은 헤아려도 씨앗 속 사과는 헤아릴 수 없다'는 사상을 심어준 총회장 목사님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라고 하시며 부지런은 선이요, 게으름은 악이라고 강조하셨다.

"여러분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상대의 행동이 지금 보기에 게으르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그의, 그녀의 행동이 미래가 되는 것인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다니면 해를 받기 때문입니다(잠13:20)."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생활 속 간증도 많이 해주셨는데 목사님은 앤틱 제품을 좋아하셔서 화랑을 자주 다니신단다. 어느 날, 제품을 사기 위해 여유가 있는 오후에 화랑을 가셨는데 화랑 주인이, "선생님, 늦게 나오시면 좋은 작품을 미술관 등에서 다 가져가요. 그러니 다음에는 꼭 일찍 나오세요."라고 했단다. 그래서 부지런을 넘어 바지런함의 상징인 목사님께서는 손자들과 토요일 아침 일찍 화랑을 방문했더니 아주 좋은 명작을 얻으셨다고 한다. 이렇게 부지런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이다. 세상에서도 부지런한 직원이 승진하고, 부지런한 사업가가 성공하듯 하나님께서도 부지런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잠12:27).

둘째 날 저녁 집회, 목사님은 청년들이 알아야 할 '3가지 성공 법칙'을 알려주셨다. 첫째는 부지런한 자가 성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십일조와 헌물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다. 세상의 은행은 이율이 5%대이지만 하늘나라 은행은 이율이 30배, 60배, 100배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십일조는 1원도 떼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성경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은 최초로 십일조를 드렸고, 그는 그 십일조로 인해 하나님께 당대의 거부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경제원리의 산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권세를 믿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단의 전매특허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는 것이다.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주셨는데 그 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시 가져가신단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사용하여 예수의 권세가 늘 충만한 젊은이들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특별강사도 많았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고 죽어가다가 기도로 기적처럼 살아난 안계훈 원장, 서울 4부 성가대장인 김정태 장로까지 이들의 훌륭한 강의는 젊은이들에게 강한 도전이 되었다.

제25회 전국 대학청년 연합수련회에 물질로, 봉사로, 기도로 도와주신 예수중심교단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대학청년부 송현혜 생도

2023 대학청년부 연합수련회(7월 27일~29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성령세례

열강하시는 목사님

아침체조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단3:10~30)

내가 어느 때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을까

어느 권사님이 건축헌금 100만 원을 입금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입니다. 그분은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형편에 100만 원을 헌금하셨다니…. 그것을 모으느라 얼마나 애썼을까?' 충분히 짐작이 가는 터라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 적다 싶어 슬그머니 헌금 궤에 두 렙돈을 넣은 여인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심정이 이랬을 겁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향한 주님의 감정이 저와 같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에 감동하사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막14:9)고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보자

누군가 그립디다. 주의 종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고요. 주의 종에게 기억되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준다고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살전1:2~3). 하물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작년 추계산상집회 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느 때 나에게 기억된 바 되었는지 아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당히 "알다마다요."라고 답했습니다.

40년 목회 길,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迂餘曲折), 산전수전(山戰水戰)을 겪은 목회 인생을 한 마디로 눈 덮인 산야요, 물 없는 사막으로 압축하곤 하지요. 예수를 만나면서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고난과 핍박, 그것은 교단으로 이어졌고, 온갖 매체를 통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움이나 좌절 대신 이를 정면 돌파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국을 돌며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작시한 곡이 '그때 너를 보았노라'입니다.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손발 닳도록 동서로 뛸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내 대신 핍박 환난 당하고 울 때 너를 보았노라.'

300억이라는 거액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좇아 올림픽공원으로 들어갔던 저를, 미국에 있는 회원들이 미국을 업고 뛰라며 미국 명예시민권을 가지고 왔을 때, '미국을 업어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어야 성공합니다'라고 당당히 말한 저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최루탄으로, 칼로, 총으로 위협을 당했을 때도, 비바람이 몰아쳐 마이크가 나가고 단이 무너졌을 때도, 차가 전복되었을 때도, KGB에 갇혔을 때도, 빈대가 온몸을 물어도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한 저를 보시고 "그래, 그때 너를 보았노라." 하실 겁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사62:6), 하나님께 기억됨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니엘은 느브갓네살 왕이 제공하는 산해진미를 이방신에게 제사한 음식인지라 거부했습니다. 포로 신분이란 것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유심히 보셨고, 기억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에 3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칙령이 발효됨을 알고도 행해왔던 것처럼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기억하셨지요. 그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지셨고, 다리오 왕 때부터 고레스 왕 시대까지 승승장구케 하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화형되는 줄 알면서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풀무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를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사 그들을 불에서 건지셨고, 더욱 높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그게 그냥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 세에 얻은 외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기꺼이 순종한 아브라함을 특별히 기억하셨고, 그와 비밀이 없는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아낌없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넬료, 그도 하나님께 기억되었습니다. 어떻게 기억되었느냐?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행10:4). 그래서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는 축복받은 자가 됩니다.

또 빌립의 초청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요1:47)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놀란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묻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공간이 아니라 간사함이 없는 그의 마음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있다고 하자 주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 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마8:8)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을 감동시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마8:10)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에 남기에 충분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몇 해 전, 이현구 장로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현구 장로가 인천교회 지을 때 공헌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제 옆에서 수족이 되어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당연히 이현구 장로의 행적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를 일으켜주셨습니다.

기도원에서 오치환 장로가 사고로 소천했을 때도, "하나님, 오치환 장로에게 잘해주세요. 그가 기도원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지 아시죠?"라고 기도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처럼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기억하실까?', '내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은 너무 작은 것인데 기억해주실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걱정일랑 붙들어 매두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참 별 걸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행한 작은 선행, 내가 한 작은 봉사, 내가 한 적디적은 헌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추우나 더우나 새벽에 나와 차량 안내를 한 당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코 닦아가며 예수님을 가르친 당신, 수련회에 와서 김밥을 말고, 설거지를 한 당신, 적금을 깨서 건축헌금을 한 당신, 이도 저도 못하지만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당신을 하나님은 다 보고 기억에 두십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 손을 내미시며, '내가 너를 안다. 그때 너를 보았다.' 하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좁은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7:23) 하시면요? 실컷 신앙생활한다고 했는데 '도무지 모른다' 그러시면? 아찔합니다. 더욱이는 가룟 유다나 사울처럼 기억하기조차 꺼리시며,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마26:24) 하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겔21:24).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는 만사 형통한다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피난하고 있을 때, 다윗군에게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제공한 바실래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그의 자녀를 데려다 은혜를 갚았지만(왕상2:7), 압살롬과 아브넬을 죽인 요압은 안 좋게 기억되어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유언했습니다. 하나님도 선악 간의 모든 일을 다 기억하시고, 마침내는 회계(會計)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 객원컬럼 ::

기독교의 위기

미국은 7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 전쟁으로 취약해진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냉전시대의 경쟁자였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정상국가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을 독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구 기업들이 진출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미국과 유럽은 고질적이었던 생필품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박요인을 해소하였고, 중국의 총체적 경제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90년대 초반 공동의 위협이었던 소련까지 해체되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서방(Collective West)은 명실공히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은 공산국가들과 국교수립을 시작했는데, 공산국가의 대부격인 소련과의 수교를 위해서 큰 금액의 차관을 지불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미 홍콩과 제3국을 통하여 많은 교역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한 중국 측에서 한국이 더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 없이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과 보완적이지만 3국 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반성장 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국가 주도하에 양성된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기초과학 및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천문학적인 자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반도체, 정밀화학, 2차전지 분야 등에서는 추격자(Follower)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이지 결코 우리가 중국보다 우월해서가 절대로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하였던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은 소련 붕괴 이후 세계화의 열풍에 따라 다양한 이방 민족과 종교, 문화까지 주류사회에 편입시켰고, 그 결과 명실공히 대부분 국교 수준이었던 기독교가 소수종교의 일부로 전락했고, 또한 성경에서 철저히 배척하고 있는 성(性)소수자(LGBT)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점입가경으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법화하자이 국가들은 빠르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러시아에서 개최된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때 아프리카 지역의 49개국 대표들은 전원 참석하여 러시아에 깊은 신뢰를 표하였고, 같은 기간 니제르의 경우 프랑스에 적대적인 군부가 정변을 일으켜 행정수반을 축출 및 감금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러시아에 복속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해외언론의 긴급보도에 따르면 군부를 지지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러시아 국기까지 들고 거리에서 지지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신이 미혹하는 죄임을 자신의 사상으로 착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개인과 국가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 국민이자 성도라면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윤석

:: 책을 펴다 ::

정보가 생명이다

내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을 때다. 그때 꽤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체로 몇 년에 한 번씩은 임대료를 인상하곤 했다. 그런데 임대료 인상이라는 그물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당시 방배동 금성대리점을 하던 사람인데, 내 건물 1층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임대료 이야기가 나올 즈음이면 어김없이 내게 아주 귀한 술을 들고 찾아왔다. 거기다 민물고기 찌개까지 얹어오니…. 당시 365일 마다하지 않고 술을 마셔대던 내게 술 이상의 선물은 없었다. 그는 내가 술이 얼큰해지면 "사장님, 요즘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아휴! 애들은 커가고 너무 힘듭니다." 하며 마구 엄살을 떨어댔다. 그러면 술기운에 기분이 좋아진 나는 되레 그를 위로하며, "그렇겠지. 알았어. 자네 가게 임대료는 안 올릴게." 하는 약조를 하곤 했다. 약삭빠르긴 했지만 아무튼 정보에 능한 자로 인정해줄 만한 친구였다.

또 다른 건물에 양복점을 하던 사람 역시 대단한 정보수집가였다. 그는 내가 멋에 관해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임대료를 올릴 즈음이 되면 영국제 최고급 양복지를 들고 나를 찾는다. 내가 좋아하는 자주빛으로 골라서 말이다. 그러니 내가 혹하지 않았겠는가. 결국 나는 양복 하나로 임대료를 대신하곤 했다.

정보란 이렇듯 승리의 키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가? 시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며느리 사랑은 따논 당상이다. 사업을 하는가?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라.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면 사업은 번창할 것이다. 성도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목회는 성공할 것이다. 정보, 바로 성공의 밑천이다.

이초석 목사 저서 '뿌리가 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중에서

2023 하계 산상집회

8월 14일(월)~17일(목), 8월 21일(월)~24일(목)

* 호텔예약: 첫주(8월 7일), 둘째주(8월 8일) 오전 10시, www.jcc.tv

* 장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 문의: 02. 533. 9191

:: To Be Succeeded ::

말씀의 빛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다.

그분은 기도하는 어머니 슬하에서 어려서부터 기도와 예배, 봉사 등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달리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산에 가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던 중, 성경이 병풍처럼 펼쳐지며 말씀 하나하나가 튀어나와 목사님께 질문했다. '항상 기뻐했느냐?', '쉬지 않고 기도했느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해왔지만, 정작 하나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던 목사님은 말씀의 빛 아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몸부림치며 통곡으로 회개했고, 이후 죽어가던 육체에 새 힘을 얻어 목회를 해오셨단다. 이처럼 말씀은 나의 행실과 심령까지 깊숙이 비추어서 내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보게 하는 빛이며, 거울이 되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한다.

어느 금요예배 때, 믿음에 관한 설교를 듣던 중 여느 때처럼 찾아주시는 말씀을 따라 읽어 내려가는데, 내가 일상 가운데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한 모습이 순간 조명되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믿음보다 염려와 부정이 묻어있는 내 모습에 깊은 회개가 나왔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감한 사건이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두웠던 세상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삭개오처럼 회개하여 돌이킨 이들도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한 이들도 있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삼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나(행2:38),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은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자 이를 갈고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고 말았다.

주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구석구석 비추어 진단해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육 간에 강건함을 회복하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국진 사모

:: 낮은 울타리 ::

전쟁을 앞둔 병사의 기도

제가 찬양단이던 시절, 예배 전 기도를 인도하던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예배가 코앞인데, 전쟁이 코앞인데 그 어떤 병사가 작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으세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저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세력이 우릴 노리고 있으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것입니다.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작게 중얼중얼 기도했던 저는 그제야 전쟁을 앞둔 병사처럼 간절히 예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을 붙잡고 특히나 예배 전에 기도할 때는 크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무장하고 악한 적을 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은 지금 서울 교회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크고 중요한 영적 전쟁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최근 우리에게, '분내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작정기도를 하는 지금 우리의 적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부정의 씨앗을 심고, 분 내게 하고, 다투게 하는 마귀입니다. 마귀와 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럴 때 저희는 전쟁을 앞둔 병사처럼 의지를 가지고 전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를 내거나 다툴 뻔한 상황을 유난히 자주 마주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는 죄와 타협하게 하고, 악한 감정이 나의 다짐보다 나를 더 휘어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6:13).

나중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을 때 당당히 최전선에서 싸웠으며, 죄와 싸워 승리했으며, 이 전쟁을 위해서 전심을 다했다고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수정

:: 동행하는 삶 ::

전도

최근에 교회에서 알게된 자매가 있다. 전도에 열정이 있는 자매인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다가 등록을 하고, 더욱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본부에 전화를 했고, 본부에서 강서교구 연락처를 알려주셨다고 한다. 강서교구 담당 전도사님이신 엄마와 통화가 되었고, 엄마가 청장년부에서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고 소개해주셔서 알게 된 자매이다.

나도 소싯적에는 전도의 열정이 있었더랬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해야겠다 늘 생각했던 때였다. 열심히 전도했었다.

그런데 요즘의 나는 어떤가? 새로 알게 된 사람들도 많고 전도할 기회가 있음에도 '전도는 어려운 거야, 신경 쓸 일들이 많아.' 등등의 이유를 대며 입을 떼지도 않았다. 전도는 하지 않으면서 부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이 자매님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전도에 대한 작아진 마음의 불꽃이 조금씩 타오름이 느껴졌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요청하고, 교회에 가자고 전하는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의 의는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고백한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전도의 과정이 되길 기도한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상'을 받는다고 한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나와 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전도하는 자매님을 보며 나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한 후 전하는 것이다. 입을 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랑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라고 말해야 교회에 가든, 안 가든 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도의 열매를 받고 싶으셔서 좋은 동역자들을 선물처럼 보내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감사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느껴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오늘부터 시작이다!

정효경 집사
happy_holly@naver.com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Good News

인간의 존재와 소외, 그리고 허무를 다룬 소설을 쓴 유대계 독일인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방황일 따름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종교로 길을 찾아가 보지만 그 길은 끊긴 길이요, 막힌 길이며, 제 자리를 맴돌며 벗어나지 못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복락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의 눈은 2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겹눈과 홑눈이 있는데, 겹눈은 움직이는 물체의 모양을 식별할 수가 있고, 홑눈으로는 밝고 어두움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열린 창문을 통하여 날아 들어온 잠자리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탈출구를 찾는데 닫혀있는 창문에 부딪히며 몇 날 며칠을 날아다니다가 탈진해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2만 개의 눈이 있어도 정작 자신이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죽은 잠자리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길을 찾다가 죽어가는 우매한 인생을 보는 듯합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겼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영생에 이르는 길 ::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적을 바라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부동산 시장에 금리가 오르면서 하락과 함께 역전세다, 전세 사기다 하며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전세 계약 연장 시점이랑 맞물리며 시세는 떨어지는데 반환할 돈이 부족하여 굉장히 걱정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반환할 보증금 총액은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딱 1억이 부족했습니다. 때마침 상가를 팔고 난 차익이 1억 원가량 생기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도 갚고, 필요한 사업자금도 쓰고 나니 딱 천만 원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해주려면 지금 당장 1, 2만 원이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천만 원이면 누가 봐도 십일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믿음이 대단하지 않았는지 제 것도 아닌데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닌 고민거리였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못하면 소위 전세 사기꾼이 될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한 이틀가량 고민하던 차에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해결해주시겠지.' 하는 심정으로 천만 원을 십일조로 내고 나니 오히려 걱정과 근심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오르기만 하던 금리가 갑자기 동결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높은 금리로 대출받았던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한 푼도 안 되던 대출이 1억 3천이나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확인하고, 5%대라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조건에 클릭 몇 번으로 1억 3천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아놓고 하루 동안은 보이스피싱 같아 어안이 벙벙해 보관만 해두었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 자금으로 보증금 반환도 잘하고 위기를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마6:33). 이때 저는 정말 한 푼, 두 푼이 아쉬웠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이 모든 것을 제게 더하신다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에라 모르겠다. 일단 내가 해야 하는 것부터 하자.'는 생각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가 필요한 것보다 더 넉넉히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문제를 맡기라는 말씀은, '에라 모르겠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부터 하자.'는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 맡기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베푸시고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김대화 집사

:: 참된 깨달음 ::

우리 교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우리 교회에 다닌 지 35년이 되었다. 그때는 서울 교회가 없어서 집에서 인천까지 꼬박 2시간을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예배를 드리고 다시 2시간에 걸쳐서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뭐가 그리 좋은지 초등학생 둘을 데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셨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다행히 인천보다 가까운 올림픽공원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지만 예배 장소가 일정치 않아 역도, 펜싱, 체조, 사이클, 테니스 경기장을 돌아가며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끝나면 교구 버스 위치도 알 수 없어 집사님들이 높이 든 교구 팻말을 따라 이동해야 했다. 성도님들은 무거운 성경과 가방을 들고, 징얼대는 아이를 500원짜리 김밥으로 달래 가면서도 매주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셨다. 고등학교 졸업쯤에 KBS88체육관으로 예배 장소가 옮겨졌다. 예배 장소도 일정하고, 넓은 주차장이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이었다. 처음엔 임시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28년이 흘렀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은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다. 시내 한복판에서 '성령의 역사' 비디오테이프를 틀고 예수님을 전하던 집사님들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되셨고, 여전히 뜨겁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신다. 복도 많이 받아서 88체육관의 넓은 주차장은 승용차로 꽉 차 더 이상 수용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88체육관 시대를 뒤로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 하신다. 목사님과 부모님 세대가 피땀을 흘려 뿌린 씨가 장성하여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된 것이다. 마흔 중반이 된 나를 돌아보니 치열했던 부모님보다는 풍족하고 편안히 살아온 나 자신이 보였다. 40일 작정 기도 중에 새로운 성전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는 감동을 강하게 받았다. 부모님 세대는 물질과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다. 이젠 새로운 성전에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할 때가 왔다. 내가 부모님 세대의 신앙 여정에 받은 감동을 나의 자녀에게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송명국 집사